

어휘 의미론에서 대두되는 전일주의적 의미관

권영수(대구가톨릭대)

1. 머리말

고대 철학에서 비롯된 의미자질을 요구하는 의미이론은 일련의 의미요소나 의미자질을 기초로 어휘소의 의미가 분석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자질 분석적인 의미론은 유럽과 미국에서 Hjelmlev와 Katz/Fodor를 필두로 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정이 가해져 왔지만 이제까지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이와 같은 자질 분석적인 발단은 낱말의미의 규정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실재 Realität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 언어학의 인식들에 의해 거부된다. 즉 필요충분 자질들에 의해 항상 의미가 분석될 수 있고, 모든 범주의 경계가 분명히 정의되고 규정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한 의미기술은 불충분한 것으로 반박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내용측면에 관한 언어학적 개념을 인지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구조주의에서의 음운, 통사적인 의미이론에서와는 달리, 의미를 인지적인 단위로 간주하는 심리적인 의미이론의 경향이 대두된 것이다. 의미분석에 대한 인지적인 단초에서는 전일주의적(全一主義的) holistisch 시각의 발단들이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휘 의미론 내에서 전일주의적인 의미개념은 Rosch의 인지 심리학 연구에서 비롯된 프로토타입 이론과 Putnam의 언어 철학적 연구의 결과인 스테레오타입 이론이 자주 시사된다. 이 이론들은 필요충분조건외의 정의적인 방법에 의한 자질 의미론을 거부하고, 프로토타입이나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의미자질을 재해석한다. 인지 심리학에서 비롯된 프로토타입 이론과 철학적인 스테레오타입 이론을 연관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공동의 목표가 정의적인 방식의 자질 의미론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 개념이고,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이론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사고는 비전문적인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화자에 의해 사용되는 제 표현의

의미가 모두다 대부분의 화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속성이나 자질로써 제시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적인 방식에 의한 자질 의미론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언어 내용이나 의미가 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미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미기술에 대한 전일주의적인 시각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언어학적 문제 제기에 있어서 프로토타입 이론과 스테레오타입 이론은 기존 이론의 토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입장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비록 여기에서 사용되는 속성들이 자질 의미론에서의 의미자질들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할 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두 이론은 자질개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의미에 대한 전일주의적인 시각으로 지지되는 프로토타입 이론과 스테레오타입 이론에 있어서 의미에 대한 분석방법의 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이 이론들이 고전적 범주이론이나 의미이론에 대한 완전한 대안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방법에서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전일주의적인 시각의 개념

전일주의적인 시각은 원래 원자 물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자연과학적 의미에 있어서 이 같은 세계관은 분석적 인식과 대립되는 포괄적인 고찰방식이다.(Vgl. Weigand 1988: 22-23) 전체에는 각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고, 각 부분들에서도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고로서, 여기에서는 정확히 경계 지워질 수 있는 제 단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일정한 정보가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만 각 부분들에 전체가 다시 함의되어 있다는 사고이다.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 전일주의적인 고찰방식에 대한 경향은 독일 언어학 연구의 전통적인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어의 의미측면을 언어 고찰에서 제외시킨 미국 구조주의에서와는 달리 Weisgerber(1964)의 언어 내용 연구에 있어서 표현측면과 내용측면을 관련 지우는 전체로서의 언어에 대한 시각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적

인 의미에 있어서 전일주의적인 고찰방식의 시각은 Gauger(1976)에서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언어기술에 있어서 낱말내용의 분석적인 재구는 이 낱말내용 자체보다 더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전일주의적인 사고가 언어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인지 심리학자 Rosch(1977)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인지와 인식은 엄격히 분석적으로 기술될 수 없고 프로토타입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연과학적인 전일주의적 고찰방식을 심리학에 원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주의 경계가 일정한 속성들에 의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고전적 범주화를 부정하고 프로토타입과의 유사성에 의해 범주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단은 인지 심리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어휘 의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자질분석을 통한 의미기술은 낱말의미의 규정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프로토타입에 대한 가계유사성의 원칙¹⁾에 따라 어휘의미가 확정된다는 사고로서 의미기술에 있어서 전일주의적인 고찰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Rosch와 마찬가지로 내포적인 intensional 의미개념을 반대하는 Putnam(1990)도 의미를 언어공동체의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개별적 의미개념을 거부한다. 즉, Putnam은 세계, 인간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상호행위를 고려하여 외연 Extension과 내포 Intension²⁾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낱말의미에 대한 전일주의적인 시각을 옹호한다.

-
- 1) Wittgenstein의 용어로 범주 소속성 결정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일련의 AB, BC, CD, DE와 같은 형식단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단위는 여기에서 하나 혹은 여러 단위와 적어도 하나의 요소를 공유하지만 모든 단위에 공통적인 요소는 없다. 이 같은 관계에 따라 가계유사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그 범주의 다른 구성원과 적어도 하나의 특성만 공유하면 족하다는 개념이다.
 - 2) 개념 내용이나 의미 내용을 통한 개념의 규정을 내포 Intension라 한다. 여기에서의 개념 내용은 적합한 자질들을 통해 설명된다. 가령 Säugetier라는 개념은 Säugetier에 대해 특수한 속성을 통해 설명된다. 거기에 비해 개념범위, 즉 어떤 표현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집합과 관련된 표현의 규정이 외연 Extension으로 칭해진다. 따라서 어떤 표현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해 주는 속성들의 집합이 내포이고, 그 표현을 통해 나타내지는 대상들의 집합이 외연이다.

이처럼 언어학이나 심리학에서 상이한 범주들은 상이한 자질에 의해 구별된다는 분석성이 전일성의 개념에 의해 부정된다.

결국 어휘 의미론에서는 낱말의 의미개념과 관련하여 2가지 방식의 시각으로 대별될 수 있다. 즉 개별 학자, 학파나 연구전통에서의 세밀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낱말의미가 개별적인 의미자질로 분절될 수 있다는 자질 분석적 의미개념과 낱말의미가 분절되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전일주의적인 의미개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언어학에서 의미에 대한 전일주의적인 시각은 자질개념을 거부하고, 어떤 현상에 있어서 분명히 경계 지워질 수 있는 부분적인 단위들을 부정함으로써 포괄적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분분석에 의한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체는 개별요소로 분절될 수 없고, 또한 전체는 각 부분들의 총체 이상으로 간주되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개별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고이다. 따라서 언어학적 발달과 관련된 전일주의적 시각은 비성분 분석적인 기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프로토타입 이론

언어적 표현의 모든 의미가 다 정확히 제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의 차이가 의미자질을 통해 경계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³⁾을 증명하기 위해 Rosch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제시한다. 첫째, 범주들은 가장 대표적 표본인 프로토타입에 속하는 핵심적인 구성원과 주변적인 구성원들을 통해 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Rosch 1973: 112). 그 때문에 범주 구성원의 소속성 판단은 ‘entweder-oder’와 같은 분류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이한 등급의 범주 구성원을 제시하는 ‘mehr oder weniger’ 방식에 의해 수행된다. 둘째, 범주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테제이다. 디지털 방식의 범주

3)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는 모두다 분명하게 기술될 수 없고, 자주 울타리 표현(Hedges)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Lakoff(1972)에 의해 시사된 바 있다. 이것은 언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모호하다는 사고에 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미분석에 있어서 자질의 개념은 프로토타입 이론가들에 의해 적합한 분석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구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Rosch 1977: 20ff.) 범주구조는 색채 스펙트럼의 범주화 연구에서 시작되어 형태범주와 Rosch에 의한 소위 의미적 범주 semantic categories로 확대되었다.

색채범주들 사이의 경계는 언어마다 상이하지만 초점색채에서 규칙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훌륭한 표본이 존재한다는 것이 Berlin/Kay(1968)에 의해 입증되었다. Rosch는 이 결과를 일반적인 시각으로 전용해서 프로토타입 이론을 창시함으로써 인지 심리학의 하위분야로서의 범주화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범주 구성원들과 관련된 내재적인 특성을 통해 범주가 정의된다면 범주 내에서 더 훌륭하거나 더 좋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과 생리학적 체계가 범주화에 함의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범주에는 최적의 대표자인 프로토타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범주화 과정에서는 특수한 인간의 특성이 관여된다고 주장한다.

프로토타입 이론에 따라 가장 훌륭한 표본으로서 중심이 되는 프로토타입과 주변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범주의 내적 구조에 대한 테제는 모든 범주 구성원들이 등가의 지위로 인정되는 자질 의미론에서의 가정과는 모순된다. 즉 전통적인 의미기술의 방식에 따라 범주의 소속성이 자질 목록의 도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정과는 달리 프로토타입 이론에서는 가계유사성에 의해 범주 구성원들의 소속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토마토와 같은 범주 구성원은 외관상 과일이지만 맛으로 판단하면 채소에 가깝고, 돌고래도 외관상 물고기와 유사하고 물에서 살지만 포유류이다(Schwarz/Chur 1993: 48). 이와 같은 범주의 경계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적인 범주들은 항상 명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Rosch는 범주 사이의 경계가 자질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고전적 범주화를 거부하고 프로토타입에 따른 자연적 범주화를 주장한다. 물론 범주의 종류와 범주화 층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토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에 대한 일반적이고 결정적인 정의는 어렵다. 결국 언어는 동적이고 유연성을 지닌 복합현상이어서 낱말의 의미분석은 관계범주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도되어야 하고, 고정된 사고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Fillmore(1982)는 완전히 일반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토타입의 개념을 언어학적 기술방식에 전용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프로토타입과 이웃 범주와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보완된다. Fillmore에 의해 범주에 대한 심층 구조의 산물로서의 프로토타입의 개념은 적어도 6가지 종류의 다양한 유형들로 구별된다.(Vgl. Kleiber 1993: 123-124). 그 가운데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CLIMB 범주는 clambering과 ascending이라는 자질로 제시되는 3가지 서로 다른 사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CLIMB 범주는 clambering 혹은 ascending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내거나, 두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전신주에 기어서 올라가는 것은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적이고, 전신주에서 내려오는 것은 두 조건중의 하나만 충족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기술방법은 의미자질에 의한 기술방법과 유사하지만 프로토타입적인 방식으로 강조된다. 자질분석에서와는 달리 이 3개의 의미 변이체들은 다의성의 의미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Coleman/Kay(1981)에 의해 LIE의 어휘의미를 프로토타입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실수나 기만, 허구 등을 시사하는 8개의 짧은 이야기가 피험자에게 제시되고, 그 이야기에 나타난 태도가 LIE 범주에 해당되는지 어떤지 1-7까지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요구된다. 즉 피험자에 의해 LIE라는 어휘소의 등급적인 배열이 결정된다. 여기에서도 CLIMB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LIE의 프로토타입적인 경우를 위해 다음 3가지의 의미요소가 제시된다.

- 화자가 의사소통 파트너에 대해 주장하는 진술내용은 거짓이다.
- 화자는 그 진술내용이 거짓이라고 믿는다.
- 화자는 진술내용을 발화할 때 청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CLIMB 범주에서와 마찬가지로 LIE라고 언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요소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2개 혹은 3개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그 낱말의 프로토타입적인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이야기는 거짓말에 해당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수나 허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를 LIE라는 어휘소에 제한하여 질문되고, 피험자들이 거짓말, 실수, 허구 등의 어휘들을 자신의 언어사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적인 연상들이 인지적인 개념과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Mangasser-Wahl(1999)은 범주 구성원의 지위가 등급적이고 범주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Rosch 테제의 관여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 내, 외의 두 그룹으로 이루어진 82명의 피험자에게 FRAU 범주에 대한 비전문적인 의미지식과 관련하여 범주구조의 전형성 등급과 자질의 등급성을 증명함으로써 어휘의미의 프로토타입적인 기술방식을 옹호한다. 우선 그녀는 FRAU 범주를 이루는 어장의 구성원들인 Mutter, Ehefrau, Dame, Mädchen, ..., Trampel, Hexe, Transvestit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이들의 전형성 정도를 부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에 속하는 피험자의 80% 이상이 Mutter(87.38%), Dame(83.72%), Ehefrau(83.44%)를 훌륭한 구성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어떤 구성원보다도 높은 전형성 정도를 나타내었다.⁴⁾ 따라서 FRAU 범주 의미기술에 있어서 이 세 개의 프로토타입이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우리들이 범주에 있어서 상위개념의 의미로서의 FRAU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그 중심에 Mutter, Ehefrau, Dame가 존재하는 낱말망(Vgl. Mangasser-Wahl 2000: 198)과 더불어 그것과 결부된 개념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FRAU 범주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적합한 관여적인 속성을 얻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이 낱말의 의미를 가장 잘 기술할 수

4) Mangasser-Wahl(1999)에 의해 조사된 Frau 범주의 어장에 소속되는 구성원들의 전형성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Mutter, 2) Ehefrau, 3) Dame, 4) Mädchen, 5) Gemahlin 6) Hausfrau, 7) Witwe, 8) Fräulein, 9) Karrierefrau, 10) Jungfrau, 11) Weib, 12) Jungfer, 13) Lesbierin, 14) Vamp, 15) Call-Girl, 16) Mannweib, 17) Flittchen, 18) Hure, 19) Schlampe, 20) Trampel, 21) Hexe, 22) Transvestit

있는 속성들을 명명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FRAU 범주의 정의자질인 [+menschlich], [+weiblich], [+erwachsen]과 더불어 이 범주의 다른 중요한 속성을 조사하고 그때그때 범주 구성원에 대한 이 속성들의 특수한 관여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전형성 조사에 의해 가장 훌륭한 구성원으로 인정된 Mutter 범주 구성원의 의미해석에서 피험자들은 liebevoll과 fürsorglich라는 두 속성을 관여적인 속성으로 제시하고, Ehefrau에 대해서는 treu, verheiratet, liebevoll, Dame에 대해서는 elegant, vornehm과 같은 것을 중요한 속성으로 제시하였다.⁵⁾ 비록 이 자질들은 고전적 의미분석에서 사용되는 필요충분 자질은 아니더라도 Mutter, Ehefrau와 Dame의 의미기술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나타낸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 의한 의미기술에서는 범주 구성원에 대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 같은 전형적인 속성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Mangasser-Wahl은 어떤 범주에 있어서 범주 구성원 지위와 자질의 등급을 통해 전형성을 증명함으로써 의미기술의 전일주의적인 시각에 의한 프로토타입적인 기술방식을 지지한다.

거기에 비해 Armstrong/Gleitman/Gleitman(1983)은 특히 짝수, 홀수, 소수와 같은 수학적 개념에 있어서는 타당한 프로토타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전통적으로 프로토타입 이론에서 선호되는 과일, 식물, 자동차 등과 같은 범주뿐만 아니라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 잘 정의되어 있는 짝수나 홀수와 같은 범주들에 대해서도 피험자들의 반응이 등급적으

5) Mangasser-Wahl(2000)의 자질부가 방식에 의해 조사된 속성의 관여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utter: fürsorglich(30%), liebevoll(29%), lieb(9%), fürsorgend(7%), weiblich(7%), verantwortungsbewußt(6%), geduldig(5%), häuslich(6%), hat Kinder(5%).

Ehefrau: treu(35%), verheiratet(25%), liebevoll(10%), weiblich(6%), fleißig(5%), lieb(5%), verständnisvoll(5%), gebunden(4%), häuslich(4%).

Dame: elegant(29%), vornehm(19%), weiblich(7%), gebildet(6%), gepflegt(6%),selbstsicher(6%), arrogant(4%), gut gekleidet(4%), älter(3%), intelligent(3%), modisch(3%), reich(3%), reif(3%), selbstbewußt(3%)

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⁶⁾ 이와 같은 경계가 잘 정의된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전형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어떤 범주 구성원들의 대표성에 대한 등급적인 반응은 범주 구성원의 지위를 평가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Vgl. Blutner 1995: 239) 그 때문에 이들은 프로토타입적인 개념 대신 '개념적인 핵' conceptual core과 '정체성 기능' identification function이라는 2중구조의 개념을 제안한다. 단지 '개념적인 핵'은 범주 구성원의 지위를 결정하지만 등급적인 반응과는 관계가 없고, '정체성 기능'이 등급적인 특성의 목록이라는 것이다.⁷⁾ 하지만 인공범주에 대해서는 개념 핵이나 범주 구성원의 지위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 일정한 범주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2중구조의 개념은 모든 어휘 요목에 대해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2중구조의 개념이나 프로토타입과 결부된 사고도 개념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프로토타입 이론에 대해 다양한 비판(Vgl. Weigand(1987), Wolski(1988), Blutner(1995))이 가해지고, 이 비판 가운데 일부는 프로토타입 이론가들에 의해서 수용되기도 하지만 짧은 발전시기를 고려할 때 전일주의적인 시각에 의한 프로토타입 이론의 유용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피험자들에 의해 제시된 과일 범주와 짝수 범주에 대한 전형성 등급은 아래와 같다. ()안의 숫자는 클수록 높은 전형성 등급을 나타낸다.

과일: 사과(6.7), 딸기(5.8), 자두(5.5), 파인애플(5.3), 무화과(2.8), 올리브(1.6)

짝수: 2(7.0), 4(6.9), 6(6.3), 1000(5.2), 34(4.9), 806(4.1)

7) 예를 들어 mammal 범주에 속하는 whale과 dog는 둘 다 똑같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들 구성원의 지위는 등급적이 아니지만, dog은 whale보다 더 훌륭한 구성원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둘 다 범주자질을 지니고 있을 지라도 whale과는 달리 dog은 'viviparous'라는 범주자질 외에 'lives on land'라는 정체성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성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스테레오타입 이론

Putnam(1990)은 내포적 의미개념을 비판하고 의미개념의 멘탈리즘을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언어 공동체의 산물(Putnam 1990: 97-98)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적, 내포적인 의미론이 거부되고, 세계, 인간 혹은 그들의 다양한 상호행위를 고려함으로써 의미를 화용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언어 공동체에서 인간의 상호행위와 이 행위와 결부된 의사소통 파트너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그의 의미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언어 공동체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평균화자의 보편적 언어분업의 가설에 Hypothese von der universellen sprachlichen Arbeitsteilung (Vgl. Putnam 1990: 30)에 의지하고 있다.

언어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분업이 필요한 언어적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화자 가운데 일부만이 이것과 관련된 기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자들은 이 일부의 화자들과 협업에 의해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Putnam 1990: 38f.) 예를 들어 어떤 언어 공동체의 평균화자들은 Gold와 같은 낱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만⁸⁾ 알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Gold의 외연과 어떤 표본이 외연에 귀속될 수 있는지 검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사용은 전문가와 평균화자와의 협업에 의해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 공동체의 보완그룹인 평균화자는 정확한 외연에 대한 규정을 항상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외한으로서의 개인은 어떤 개념의 외연을 스스로 정의하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낱말에 대한 규약적인 견해인 스테레오타입적 지식과 같은 최소의 의미에 대한 언어능력을 지닌다. 따라서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언어능력인 스테레오타입을 아는 것이 Putnam에 있어서의 내포개념이 되는 것이다.

Putnam(1990: 68)은 스테레오타입을 ‘어떤 X가 어떻게 보이고, 그것이

8) 예를 들어 화학적으로 순수한 금은 흰색이지만 동과의 혼합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 평균화자들에 의한 Gold의 스테레오타입들 가운데 하나는 ‘노란색’이다. 이와 같은 스테레오타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견해, 가치평가 혹은 규약을 내포하고 있지만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며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규약적으로 뿌리 내려진 견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Tiger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줄무늬가 있다'이다. 스테레오타입은 거짓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내용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정보내용은 우리들의 의사소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공동체의 개개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그 문화와 사회에 특수하게 통용되는 스테레오타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Tiger의 의미를 습득한 사람은 스테레오타입적인 Tiger는 '줄무늬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요구받는다. 그것은 언어 공동체가 그 자체로서 전제하는 하나의 Tiger-스테레오타입이 '줄무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무늬가 있다'는 스테레오타입 자질이 포함되어야만 Tiger 라는 낱말의 의미습득이 인정되는 것이다. (Putnam 1990: 68) 물론 Tiger라는 낱말과 결부된 스테레오타입에 '줄무늬가 있다'는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혹은 어떤 일정한 Tiger가 반드시 이 자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3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Tiger나 백피증의 Tiger도 이 낱말의 개념 핵에 따른다면 Tiger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테레오타입의 중심적인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 이 같은 범주에 소속될 수 있는지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속성들로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Putnam 1990: 41)

이처럼 스테레오타입과 의미의 한 부분으로서 가치와 암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Putnam은 전통적 구조주의적인 협의의 의미견해에서 벗어나 대화파트너 사이의 상호행위에서의 어휘사용 방식을 기술함으로써 자질 의미론의 순수한 언어적인 의미개념을 언어외적인 정보들로 확대한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은 인간, 환경, 상호행위를 통해서 생성되고,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의미의 사회 언어학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서 Putnam에 있어서 의미개념은 다차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낱말의 의미기술은 통사적 표지 syntaktische Marker, 의미적 표지 semantische Marker, 스테레오타입 Stereotyp, 외연 Ext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Wasser에 대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Putnam 1990: 94)

Syntaktische Marker : Kontinuativum, konkret.

Semantische Marker : natürliche Art, Flüssigkeit.

Stereotyp : farblos, durchsichtig, ohne Geschmack, durstlöschend etc.

Extension : H₂O

Putnam의 후기연구에서는 초기 모듈적인 제안보다 더 전일주의적이고, 상호 작용적일(Putnam 1991: 51) 뿐만 아니라 전문가-문외한과 같은 2분법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매개변수, 특히 개별적-사회적 의미의 변화, 스테레오타입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차원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Putnam에게 있어서는 외연이나 내포가 분석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전일주의적인 것으로 개념화된다.

Putnam에 의한 이 같은 방식은 문장의 의미기술이 목표가 아니라 낱말의 의미기술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리가 의미론의 분석방식에서와는 달리 의미의 어휘적인 기술층위에 집중되어 있다. 즉 그는 Wasser, Gold, Tiger과 같은 자연종 범주에서 출발하여 의미적, 언어적인 분업의 사회학적 가설과 스테레오타입의 존재와 의미를 요구한다. 바로 이와 같은 제한된 어휘영역에 대해 스테레오타입의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와 관련된 최소의 언어능력 혹은 개인간의 집합적인 최대의 언어능력이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필요충분 조건에 의한 의미가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한 상태로 언어 공동체와 관련 지우고 있다. 그의 의미기술은 모호성과 실재론적인 어휘의미에 대한 기술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타입의 기준자질에 의해 고정된 불변의 의미 핵이 존재한다는 것을(Vgl. Meinhard 1984) 시사하기 때문에 때때로 원자론적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5. 두 이론에 있어서 전일주의적인 고찰방식의 특징

어떤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규칙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미에 대한 사용규칙들은 언어행위에 대한 규칙들로서, 이 관계규칙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텍스트에 나타나는 표현과 관련

된 대상에 대한 백과 사전적 지식의 일부이다. 물론 이 관계규칙에 대한 지식은 Putnam의 언어분업 원칙에서처럼 모든 언어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에 관한 관계규칙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표현에 의해 나타내진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Wiegand 1987: 47) 어떤 언어적 표현의 일상적인 사용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대상구성 의미지식 *gegenstandskonstitutives Bedeutungswissen*은 의미지식의 일부로서 다수의 화자그룹이나 공동의 생활관습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비교적 일정한 고정된 지식이기 때문에 백과 사전적 지식의 특별한 부분으로 파악될 수 있다. (Wiegand 1987: 773) 이것은 범주지식과 그것으로 연상되는 스테레오타입적인 지식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대상구성 의미지식은 모든 화자의 모든 관점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히 스테레오타입적 지식은 변할 수 있고 엄격히 백과 사전적 지식과 구별될 수 없다.

독어권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념은 스테레오타입 개념과 혼용되어 수용되기도 했다.(Vgl. Lewandowski(1990), Bußman(1990), Metzler Lexikon Sprache (1993)) 혼용의 원인은 세계지식과 언어지식의 분리를 지양하고 백과 사전적 지식의 옹호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개념의 중요한 차이점은 Putnam이 낱말의미의 범주 내적 구조나 범주간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있다. 즉 이웃하는 범주나 어휘에 대한 전체적인 분절원칙과 의미기술에 있어서 경계개념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다소 직관적으로 자신의 언어감각과 경험에 의거한 Putnam의 의미모델에 있어서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의미구조나 유사한 의미구조에 대한 구별, 즉 어휘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미관계, 의미 망 내에서의 개별 구성원들의 위치가에 대해서는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때문에 Klein (1998: 27)은 스테레오타입 개념의 적용을 인간범주 내지 인종, 직업, 제도 등의 사회적인 조직에 대한 어휘영역으로 제한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9) *Zitrone*의 예에서 예를 들면 'daß eine Zitrone eine Frucht ist', 'daß sie ein Nahrungsmittel ist'와 같은 지식은 범주지식에 속하는 반면에, 'daß Zitrone gelb sind', 'daß sie saftreich sind'와 같은 것은 스테레오타입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제한된 어휘들과 관련해서 만이 가치평가, 화자입장이나 사회 심리학적인 판단개념에 대한 접근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스테레오타입 개념을 프로토타입의 구조적인 개념을 내용적으로 보충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프로토타입 이론과 스테레오타입 이론은 순수한 언어적인 의미개념이 아니라 둘 다 공히 백과 사전적 의미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즉 실재, 세계, 상호행위와 경험들이 하나의 전일주의적인 의미개념으로 통합된다. 특히 프로토타입 이론에서는 Saussure에 의한 언어기호의 자의성이 거부되고, 인지적인 범주화 과정이나 언어적 범주화 과정에서 우리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한 부분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주화는 주변에서 발견되는 단면이나 범주에 따라 수행되고 거기에 일치해서 지칭되는 것이다. Putnam에 있어서의 의미도 임의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일정한 보편적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프로토타입과 스테레오타입의 개념이 실재와 관련되어 있고 백과 사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범주인 구체명사, 인공물 내지 자연종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Vgl. Putnam 1990: 34ff. 57ff.) 그 때문에 이 범주론과 의미이론은 순수한 내포적인 의미개념과 낱말의 의미확정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낱말에 대해 항상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충분 조건의 도움으로 기술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조화된 범주의 존재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Vgl Rosch 1977: 20) 또한 Putnam이 부분적으로 필요조건에 집착하고 있을지라도 그에 의한 의미기술은 고전적 의미이론에서처럼 분석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은 의미의 분석과 기술에 있어서 'ja/nein'이나 'entweder/oder' 원칙의 우위를 반대하고, 언어의 모호성을 강조하는 'mehr oder weniger'의 결정방식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 구조주의적인 의미이론과 범주화 이론은 낱말과 그 의미 사이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반면 프로토타입 이론과 스테레오타입 이론은 Wittgenstein의 가계유사성 이론에 기인되는 유사성을 강조한다. 날개 없는 새(Vgl. Aitchison

1997), 물고기처럼 생활하는 포유류(Vgl. Schwarz/Chur 1993), Albino-Tiger (Vgl. Putnam 1990)와 같은 범주 구성원처럼 이제까지 자질의미론의 의미분석에서 등한시된 언어의미의 제 측면들이 강조된다. 전통적 범주이론이나 의미론에서는 이 같은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의 시각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이들은 기술방식에서는 상이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에 반대하여 화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전제가 되는 최소의 의사소통을 위한 인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Rosch에 의해 추구된 전일주의적인 고찰방식은 프로토타입을 디지털 방식에 의해 분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주의 내, 외적인 관계들을 공간적으로 기술하는 다차원적인 서술방식이다. 현재 프로토타입 개념 자체를 기술하는데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몇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의미기술을 위해 언어학과 심리학에서 얻어진 인식의 포괄적인 논의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토타입 개념에 비해 스테레오타입 개념은 모든 낱말유형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적이지 못하고, 의미개념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부분측면만 설명하고 기술하기 때문에 구조화 모델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프로토타입 개념은 구조적으로 스테레오타입 개념보다 적용가능성이 더 방방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6. 맺음말

전일주의적인 의미개념은 다양한 의미차원들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견술적 heuristisch 혹은 기술적 deskriptiv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Mangasser-Wahl 2000: 180) 내포나 외연과 같은 중심적인 의미개념이나 유사성 관계 등이 등한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질 의미론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 프로토타입에 의한 전일주의적인 분석방법과 더불어 어떤 정확한 경계를 제시할 수 없는 개념인 스테레오타입 개념의 발단도 전일주의적인 시각에 의한 이론일지라도 이들 자체는 자질개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자질로 처리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 정보저장 방

식이 언어에 전용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자질분석 방법과 범주화의 고전적 방식이 실재에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전일주의적인 고찰방식도 일정한 제한된 어휘들에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추상화의 방법으로서 범주화는 복잡한 실재의 표층구조에서 벗어난 추상적인 설명의 방식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복합적인 실재를 남김없이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생활형식으로서의 언어도 근접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언어사용의 실재와 언어기술 사이에 공백 없는 결합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인지와 사고의 개념들은 현실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에 주변 가장자리에서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남김없이 분석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일주의적인 범주화나 의미론은 현실의 복합성에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전일주의적인 방식은 기술력은 있지만 고전적 방식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재는 복잡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원칙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 단순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설명력을 지닌 고전적 범주나 자질개념이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전일주의적인 의미개념의 심리적인 실재에 대한 가정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어휘의 의미를 쉽게 구별하기 위한 기술로서 의미자질 분석의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전일주의적인 발단과 고전적 발단은 보완적인 시각으로 서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Aitchison, J. (1997): Wörter im Kopf. Eine Einführung in das mentale Lexikon. Aus dem Englischen von Martina Weise. Tübingen: Niemeyer.
- Armstrong, S.L./ Gleitman, L./ Gleitman, H. (1983): What some concepts might not be. In: Cognition 13, S.263-308.
- Berlin, B. /Kay, P.(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eman, L./ Kay, P. (1981): Prototype semantics: The english word lie.

- In: *Language* 57, S.26-44.
- Gauger, H.-M. (1976): Zum Bedeutungsbegriff der strukturellen Semantik.
In: Ders.(ed.): *Sprachbewußtsein und Sprachwissenschaft*, S.108-140.
- Kleiber, G. (1993): *Prototypensemantik. Eine Einführung.* Narr Studienbücher,
Tübingen: Narr.
- Klein, J. (1998): Linguistische Stereotypbegriffe. Sozialpsychologischer vs.
Semantiktheoretischer Traditionsstrang und einige frametheoretische
Überlegungen. In: Heinemann, M.(Hrsg.), *Sprachliche und soziale
Stereotype*, S.25-46.
- Lakoff, G.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papers from the eigh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S.183-228.
- Mangasser-Wahl, M.(1999): *Methodenpluralismus im Rahmen einer
empirischen Prototypensemantik.* In: Spillmann, O., Warnke, I.(Hrsg.):
*Internationale Tendenzen der Syntaktik, Semantik und Pragmatik.
Akten des 32. Linguistischen Kolloquiums in Kassel/ 1997.*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S.315-322.
- Mangasser-Wahl, M.(2000): *Von der Prototypentheorie zur empirischen
Semantik. Dargestellt am Beispiel von Frauenkategorisierung.*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Meinhard, H.-J.(1984): Invariante, variante und prototypische Merkmale
der Wortbedeutung.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1, S.60-69.
- Putnam, H.(1990): *Die Bedeutung von Bedeutung.* Hrsg. u. übers von
Wolfgang Spohn. Frankfurt am Main: Klostermann.
- Putnam, H.(1991): *Repräsentation und Realität.* Frankfurt/Main.
- Rosch, E.(1973):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erceptual and semantic
categories. In: Moore, T.E.(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S.111-144.
- Rosch, E.(1977): *Human Categorization.* In: Warren, N.(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e 1.* London: Academic press, S.1-49.

- Schwarz, M./ Chur, J.(1993): Semantik. Ein Arbeitsbuch. Tübingen: Narr.
- Taylor, J. R.(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2.Ed). Oxford: Clarendon press.
- Weisgerber, L.(1964): Zur Grundlegung der ganzheitlichen Sprachauffassung. Aufsätze 1925-1933. Zur Vollendung des 65. Lebensjahres Leo Weisgebers hg. von Helmut Gipper. Düsseldorf.
- Weigand, E.(1988): Holistische Tendenzen in der linguistischen Forschung. In: Rupp, G. & Weigand, E.(Hrsg.): Jahrbuch der Deutschdidaktik, S. 22-31.
- Wiegand, H.E.(1987): Was ist eigentlich Fachlexikographie? Mit Hinweisen zum Verhältnis von sprachlichem und enzyklopädischen Wissen. In: Munske, H. et al(eds.): Deutscher Wortschatz. Lexikologische Studien. Ludwig Erich Schmitt zum 80. Geburtstag von seinen Marburger Schülern.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 Wolski, W.(1988): Zu Problemen und Perspektiven des Prototypen- und Stereotypenansatzes in der lexikalischen Semantik. In: Hüllen, W./ Schulze, R.(Ed.): Understanding the Lexicon. Meaning, Sense and World Knowledge in Lexical Semantics. Tübingen: Max Niemeyer, S.415-425.

Zusammenfassung

Holistische Bedeutungsauffassung in der lexikalischen Semantik

Kwon, Young-Su(Catholic Univ. of Daegu)

Was die Konzeption von Wortbedeutung angeht, so ist festzustellen, daß sich in der lexikalischen Semantik Konzeptionen von sprachlicher Wortbedeutung in zwei Hauptauffassungen teilen lassen. D.h. eine komponentielle Bedeutungsauffassung, nach der Wortbedeutungen in einzelne semantische Komponenten zerlegbar sind,

läßt sich von einer holistischen Bedeutungskonzeption, die Wortbedeutungen als ganzheitlich und nicht weiter zerlegbar begreift, unterscheiden.

Holistische Ansätze im allgemeinen Sinn erfassen ein Phänomen ganzheitlich. Bezogen auf sprachwissenschaftliche und psychologische Ansätze bedeutet aber 'holistisch' eine nichtkomponentielle Beschreibung. Bestimmt man den Begriff 'holistisch' als die Leugnung klar abgrenzbarer partikulärer Einheiten, so erhält 'holistisch' einen spezifischen Sinn in holistischen Ansätzen.

Im Hinblick darauf können der kognitionspsychologische Prototypenansatz von Rosch und der philosophische Stereotypenansatz von Putnam bedeutsam werden. Entweder ist damit die Ablehnung einer definitorisch verfahrenen Merkmalsemantik verbunden, oder es werden Merkmale nun lediglich als stereotypisch-definitorische uminterpretiert. Eine ausgeformte Prototypensemantik bzw. Stereotypensemantik gibt es bisher nur als Postulat eines zur definitorisch verfahrenen Merkmalsemantik alternativen Bedeutungskonzepts.

Diese holistischen Ansätze versuchen sich gerade in der Kontroverse zur Merkmalsemantik zu etablieren, kommen aber selbst nicht ohne das Konzept des Merkmals aus. Sie sind auch nicht auf alle Wörter unseres Wortschatzes gleich gut anzuwenden, weil es nicht für alle Wörter Stereotype gibt und die Existenz digital strukturierter Kategorien, die mithilfe von hinreichenden und notwendigen Bedingungen beschrieben werden können, nicht geleugnet wird. Die holistischen Ansätze sind als Versuch zu beurteilen, der Realität in ihrer Komplexität möglichst nahe zu kommen. Doch bleibt das Problem, wie Holismus im Bereich der Sprachbeschreibung adäquat wiederzugeben ist.

Auch wenn wir für die Annahme der psychologischen Realität eines holistischen Bedeutungsbegriffs plädieren, so bestreiten wir damit nicht die Nützlichkeit der komponentiellen Bedeutungsanalyse als leicht handhabbare Beschreibungsnotation für die Bedeutung von Wörtern mit wohlunterscheidbaren Referenten. In diesem Sinn könnten vielleicht beide methodischen Ansätze in einer komplementären Sicht integriert werden.